

한국디자인의 형이상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metaphysical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Design

이은숙 Lee, Eun-sook

Native Design Studies

· key word: a metaphysical design/Confucianism, Buddhism, Taoism/nature/purity/humanity

1. 현대디자인의 시대적 요구

20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과 가속화되는 과학의 발달, 특히 과학분야에 있어 양자역학이론이 대두되면서 세계가 결코 부분들로 분해할 수 없는 통일적 관계에서 이루어짐을 인식하게 되었고 마침내 자연과 대립되었던 인간을 다시 자연과 통합시켜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디자인도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방법론에서 벗어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를 잇고 전달하기 위한 문화적 영역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디자인이 문화를 전달하는 언어체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언어주체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의해 한국의 디자인도 역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근대의 서양적 가치에서 벗어나 과학의 통일장보다 상위개념인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형이상적 특성'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디자인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디자인의 형이상학적인 문제는 국가의 경제력과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동시에 한국 뿐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디자인의 정신적 균형을 위해 반드시 재 고찰되어야 한다.

2. 한국사상의 형이상적 특성

2-1. 동이족의 仁사상을 통해본 형이상적 특성

중국에는 고대로부터 이질적인 두 종족, 즉 夏, 殷, 周 3대를 거쳐 발달해 온 서방의 漢族과 3대 이전부터 일찍이 발달한 非漢語系의 민족인 동이족이 있었다. 동방의 夷族은 서방의 漢族과는 대조하여 흑도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언어와 민족이 漢族과는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며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은나라의 수도 은허에서 발견된 갑골문과 동이족의 거점에서 출토된 牛骨卜辭, 古記錄에 기록된 자료를 보면 동이족은 점을 통해 神意를 물어보고 그 뜻에 따르는 풍속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특성으로 한국인의 형이상적 특성을 이루는 기본이 된다.

상고대에 東夷는 '人族'으로 칭하여졌다. 人族은 고유명사이며 東夷나 淮夷, 東人, 淮人으로 기록되었다. 사실 夷의 칭호는 후기에 와서 된 것이고 본래는 '人'이었다. 이 '人'이 나중에 사람을 일컫는 일반명사화 된 것이다. 이는 은허의 金文기록 중에도 보이며 殷墟卜辭에도 '人方'이라고 칭하는 동이의 정벌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人'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仁한 것이었다. 이는 『呂氏春秋』와 『山海經』에도 나타난다. 특히 『山海經』 제14 (大荒東經) 條에는

‘有東口之山 有君子之國 衣冠帶劍... 好讓不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人'이라는 사람들의 특성이 외적으로는 威儀와 禮貌가 있는 내외가 구비된 군자임을 증명한다.

이런 이유로 고대에는 人과 仁을 같은 의미를 가진 말로 사용하였고 이는 논어, 주역, 맹자에서도 보인다. 따라서 仁은 '人方'의 人에 근거한 것이며 인방족의 人과 君子之國의 君子는 같은 의미이다.¹⁾

공자의 仁思想은 동이족의 군자정신을 체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자는 군자의 정신이 禮讓에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유학의 기본정신이다. 그래서 공자는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뜨고 싶다고도 하고 夷方에 가서 살고 싶다고도 하였다.

仁은 '남을 나와 같이 생각하여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동이족들은 원래 남과 나를 남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로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개체적인 삶에서 벗어나 너와 나, 하늘과의 구별이 없는 절대적인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한국인은 고대로부터 하늘을 숭상한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는 형이상적 지향성을 갖는다.

2-2. 한국유불선의 형이상적 특징

한국은 중국사상 가운데 한국의 성향에 맞는 공자, 맹자, 장자의 사상과 불교와 같은 형이상적 사상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묵자, 순자, 법가의 사상은 수용하지 않았다. 牧隱 李穡에 의해 주체적으로 받아들인 주자학은 권근, 이언적 등을 거치면서 형이상적이며 인간중심적인 철학으로 발전하여 나갔고 退溪 李滉과 栗谷 李珥에 의해 완성되었다.²⁾

퇴계철학의 목적은 인간 본성을 회복하여 하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퇴계는 수양철학에 치중하는데, 그 근거는 하늘이 인간과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居敬을 통하여 하늘을 요소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退溪의 사상이 理氣를 이원화시키고 같은 情을 理發과 氣發로 분석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惡이 되는 七情을 극복하고 四端을 확충하는 수양을 통해 聖인이 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聖人是 仁의 총체이다. 다시 말해 퇴계는 純善한 理의 삶의 방식을 중시함으로써 현실을 사는 인간에게 고통과 생사를 초월하는 진리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율곡은 이 세상을 이상세계로 만들기 위하여 개혁사상을 주장한다. 실제로 개혁에 종사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고 마음은 그 몸에 실려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율곡은 인간의 육체적 요소인 氣의 가치와 역할을 중시하였다. 율곡에 있어서 학문의 목적은 성인이 되기 위한 것인 동시에 天人無間을 체득하여 현실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1) 류승국, 「유학사상형성의 연원적 탐구」, 1988, 동양철학연구
2) 이기동, 「동양삼국의 주자학」, 1995,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 본래성을 회복하면 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현실을 이상세계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에 근거하여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一心을 믿고 일심의 근원으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일심의 세계는 한마음의 세계이다. 한마음이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체이고 일체의 구별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대립할 필요가 없다. 이 일심을 터득한 그는 분열된 이론들을 모아 심문으로 분류하여 모든 쟁론을 종식시키고 하나로 조화시켰다. 또한 지눌은 선교일치에 대한 확신으로 성적등지문(惺寂等持門),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경절문(經截門)의 三門을 닦도록 하는 선사상 체계를 세웠다. 이것은 원래 내 속에 오염되지 않은 마음, 즉 부처와 같은 진여자성(眞如自性)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의 돈오점수(頓悟漸修)설은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점차로 닦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눌의 이러한 사상은 한국인의 天人無間사상과 人乃天사상, 仁의 사상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국불교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

노장사상은 세속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자연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초월적 사상이다. 노장의 자연은 사비(是非)판단이 없고 유무(有無)의 구별도 없는 초월적이고 형이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연이 우주 생성의 총원리가 되고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이 원리에 의하여 생성된다. 따라서 자연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세계에 앞서서 존재하며 그 영원성과 생명성을 가진다. 한국인은 동북아 3국 중에 가장 노장적 기질을 가진 민족이다. 이는 유·불 사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인에게 형이상적 정신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인은 현실의 삶이 고달플수록 더욱 초월적인 정신의 세계를 생각하며 고통에서 자유롭고자 하였다. 노장의 이러한 정신적 자유의 추구는 한국인에게 일찍이 체득되어 생활화된 것이다. 안빈낙도하는 선비정신이나 물질적 가치에 자기를 잃지 않는 풍류의 기질에서도 이것이 잘 드러난다.

3. 한국디자인의 형이상적 원리

3-1. 하늘을 향한 추상성

단군신화는 환웅을 통해 한국인이 본래 天人이었다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또한 유, 불, 선의 가르침이 하나의 진리가 한국인의 마음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하늘을 지향한다. 한국인의 인간완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과 같은 인간'이다. 따라서 한국디자인은 하늘과 같은 디자인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물리적인 형태로서 '飛翺'으로 나타난다. 한국 탑의 사방 모서리의 살짝 올라간 곡선, 성덕여종의 보상화문과 비천상, 백제의 왕관을 장식한 꽃장식과 화염문, 한복의 곡선과 비례, 한옥의 지붕 등이 모두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飛翺'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든 디자인 요소의 조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완벽한 디자인 요소의 조화를 우리는 석굴암과 청자, 백자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한국사상에 있어 '하늘'은 작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담는다. 그러므로 한국디자인은 순수하고 맑고 담백한 표현이 주를 이룬다.

또한 하늘과 같은 디자인은 중용에서 말한 率性하는 디자인, 즉 사육의 가림이 없이 '公의인 나로서 임한 디자인을 말한다. 이는 개체적 입장을 초월한 전체적 입장의 사고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익보다 公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디자인에 있어서 윤리가 없는 디자인은 의미가 없다. 디자인에 있어 윤리를 회복하는 것은 '하늘'이라는 한국인의 본래성을 발견하는 것이 된다.

3-2. 자연을 통한 관계의 생명성

無爲의 디자인은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느낌'의 세계에서부터 나온다. 한국인은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발달한 사람들이다. 이를 본연의 마음(本然之性)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든 사람의 생명 속에 내재한 선천적인 善의 근원인 '자연성'을 말하는 것이다. 無爲의 디자인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디자인이 아니다. 無爲의 無는 '없는 것'이 아니라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되 '한다는 의식이 없는 것'을 無爲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디자인은 감각위주의 표현보다 진정한 사물의 본질을 가리지 않는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디자인이어야 한다. 이는 노장이 주장하는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한한 생명력과 자유가 있다.

또한 인간의 본질인 마음에는 일정한 패턴이 없다. 한국의 디자인은 법칙이나 질서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디자인은 부정형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물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부정형의 디자인은 경계가 모호하고 뚜렷한 구분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디자인에는 일정한 그리드가 없다. 그리드에는 질서가 있을 뿐 자유와 생명성이 없기 때문이다.

3-3. 인성의 정감성

한국디자인은 따뜻하다. 따뜻한 것은 한국인의 仁한 인격에서 비롯된다. 仁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즉 '본성대로 사는 사람,' 수양이 된 사람'을 말한다. 그런 사람은 仁을 바탕으로 義와 禮, 智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仁義禮智는 사람의 근본이 되고 한국인은 이러한 仁義禮智를 바탕으로 그 정신의 기본을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의 방식을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성선설적 인간성을 바탕으로 하는 삶은 상황에 따른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과 동시에 남과 내가 '하나'임을 자각하여 조화를 이룬다. 이는 한국인의 가치가 知보다 仁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디자인은 인간의 본성적 태도로부터 나오는 仁한 정감이 발휘되어 둥글둥글하면서도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다. 이를 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인 표현들은 정확하고 뾰족하거나 딱딱하고 건조하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지적인 표현은 일시적으로는 관심을 가지지만 지속적인 호감을 가지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본래 모습에 충실하여 가식하지 않으며 평범한 표현, 복잡하고 난해하지 않은 표현들은 긴 생명력을 가진다. 예를 들면 농심라면과 새우깡, 그리고 초코파이 등이 그것이다. 평범하고 따뜻한 것에는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국디자인의 정감적 표현이며 실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한국의 현대디자인은 한국사상을 알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때 보편적 공감과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다. 한국사상을 근거로 추론된 추상성, 생명성, 인간성의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은 이제까지 경험한 서양의 물질문화와 균형을 이루어 동서의 문화가 화합하고 융합하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한국디자인 철학의 확립은 20세기의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디자인 방법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한국디자인의 방법론을 도출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본다.